

'95 불교학술계

# 묵직한 논서발간 · 각종 강좌등 기획

## 대장경 전산화에도 주력... 세미나 준비는 아직 미비

올해도 불교학술계는 각종 불교사건 및 논문집 발간, 자료집, 번역서 출간,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움 등 다양한 학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소가 열악한 연구환경을 가지고 있어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학술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으로 한 계획은 학술행사를 비롯한 시기에 집중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원을 교육·출판·학술분야로 구분, 체계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모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올해도 <불교대사전> 편찬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가산 학술상 및 연구비전정자 확정·시상 △원전연구회 연구성과를 출간하기 △(가산학보) 제4호, <한국불교사상대계>, <역주역대고승비문> 제4권 출간 △원전연구회·한국불교학전문 교육

이외에, △국내외 불교학연구원자 및 연구현황을 자료화해 일반인에게 개방할 「가산불교학자료실」 기획 등이 주요한 사업들이다.

한국불교학의 메카로서 최근 부설 연구원에서 부속기관으로 승격, 연구교수제 도입과 예산 증액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운길)은 최근 <Buddhist Thought in Korea>(영문판)을 발간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2월말의 <한국의 불교학연구> 그 회고와 전망) 발간을 시작으로 중장기 학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불교사상사 개관)(중국어판) 발간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한국불교전적사적지), <불교학보> 제32집 발간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역주 △(Dictionary of Korean Buddhism)(영문판) 편집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2년여의 연구소 안정화 토대 준비기간 동안 교정지원 봉사요원 150여 명을 양성, 올해를 연구소 사업 안정화 시기로 잡고 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

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자료 입력완료 △강원교재 프로그램의 보완·개발 완료 △대장경 목록·해제 검색프로그램 개발 △96년 3월 대만 불공산에서 열릴 제3차 전자불전협의회 기획 등.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은 △(구산선문 자료집), <해설스님 어록>, <18국사 자료집> 발간 △보조사상연구원 연구발표 논문집 발간 △정례 학술발표회 개최와 아울러, 96

년도에 가질 예정인 국제학술회의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1월달의 △제10회 「불이상」시상식을 시작으로 △초·중·고교교사 불교연구회 △정례 국제학술세미나 △불교개론 강좌 등을 기획하고 있다.

백련불교문화연구원(원장 장영택)은 <백련불교논집> 제4집 발간과 정례 학술세미나를 준비중이고, 회당학회(회장

변중오)은 학보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와 함께, 서울·부산·대전 등 지역단위 학술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이와같은 대표적인 학술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소와 학회들은 아직 신년 계획서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족의 원인과 함께,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위주로 흐름을 위협성이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김재경기자)

### “계율은 생태계 조화의 열쇠”

윤리·환경문제 「열반경」 통해 조명

신성현씨 박사논문서 주장



신성현씨

오늘날 환경과 문명의 위기 시대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계율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나왔다.

94년도 동국대 후반기 박사학위논문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에서 신성현씨는 “현대 사회 속에서 문명의 과소비로 빚어진 인간성 소외, 그리고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부조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고 진단하고, 불교의 계율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열반경” 성립 당시 인도의 사회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열반경>은 사회와 교단이 지극히 혼란스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상과 윤리를 요구하는 중생에게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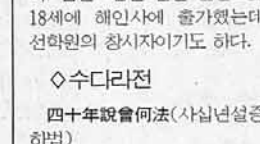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다”는 불성론(佛性論)과 이러한 불성의 자각은 다름아닌 계율을 지님으로서 발견할 수 있으며, “계율은 장법을 지키는 계율이 돼야한다”는 계율론(戒律論)을 주장한 것이 <열반경>이 갖는 요지다.

“현대문명의 변화는 기존의 윤리가 아닌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기에, 이제는 윤리의 차원을 인간을 떠난 동물, 나아가 생태계(生態圈)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는 신씨는 “윤리의 원형 내지는 근간은 (열반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 현장이 곧 원각도량일세”

해설 40년 말씀이 일찌기 무슨 법문이였을까. 육친권의 경전이 홀로 여기

권영한



권영한

수나라전의 요망 중앙 좌우 기둥에 걸린 이 주련은 위당 신관호(威堂 申觀浩 1810~1888)가 쓴 것이다.

40년 말씀이 일찌기 무슨 법문이였을까. 육친권의 경전이 홀로 여기

해설 부처님께서 40여년간 설하신 내용이 6천여권의 경전으로 정리되어 여기 있으니 모든 수행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불하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권영한

40년 말씀이 일찌기 무슨 법문이였을까. 육친권의 경전이 홀로 여기

해설 부처님께서 40여년간 설하신 내용이 6천여권의 경전으로 정리되어 여기 있으니 모든 수행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불하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 경전속 대화도 대인 커뮤니케이션

선업스님 석사논문 「불교경전에...」서 밝혀

불교경전을 현대언론학의 보편적인 분석틀인 커뮤니케이션학에 의거,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업스님은 94년도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후반기 석사학위논문 <불교경전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적 분석>에서, 방대하고 풍부한 내용의 불교경전이 대인(對人) 커뮤니케이션의 체제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경전에 실려져 있는 많은 대화상황들을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 단순화시켜 그

### 좌선을 하고 싶는데 조건을

희망한 새해, 스님의 법체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좌선을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요.

(충남 천안시 신부동·김진선)

답 앉아서 지리라고 해야만 참선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중에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노릇도 했다가 남편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렇게 실재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들이고 내는 것을 몰록 놓고도 편하고, 서서도 편하고, 앉아서도 편했지요. 편안한 그 자체가 좌선이자 행선이고 참선인 것입니다.

행·주·좌·와 모두가 마음도리이기 때문에 좌선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따로 좌선이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군요. 좌선이나 아니냐를 논하다보면 진정한 좌선, 진정한 참선을 할 수 없고 어느 때 자

반어심경에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하였는데 공과 색을 둘로 보는 한에는 본래 공한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니 한 생각 일으키는대로 채곡채곡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다.

본래 나를 잊게 한 근본 주인공 자리를 공하여 업이라는 실체가 없고 그럼으로써 업이 불을 지리도 없건만 공한 사실에 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이 없는 합’이 되질 않고 지은대로 등짐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한 주인공 자리에도 몰락 놓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매다 무심이다 하는 것도, 삼매요 무심이라하면 이미 불을 지리다 있는 것이니 몰락 놓아 공한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리, 그야말로 많이 끊어진 자리가 그대로 여여하고 청정한 공의 자리입니다.

답 앉아서 지리라고 해야만 참선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중에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노릇도 했다가 남편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렇게 실재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들이고 내는 것을 몰록 놓고도 편하고, 서서도 편하고, 앉아서도 편했지요. 편안한 그 자체가 좌선이자 행선이고 참선인 것입니다.

행·주·좌·와 모두가 마음도리이기 때문에 좌선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따로 좌선이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군요. 좌선이나 아니냐를 논하다보면 진정한 좌선, 진정한 참선을 할 수 없고 어느 때 자

### 혹성도 끌어들 볼 수 있다는데

문 공부의 차원이 높은 이들은 가령 혹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념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극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기를 발견하게 될 지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는 마음의 불을 켜야 하는데 몸통이 없었다고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외가닥 전선으로 불을 켤 수 없듯이 지리라고 앉을 생각 하시기 전에 마음도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성의 세계를 가시 볼 수도 있고 끌어들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불 밖으로 자유로이 드러나를 말하는 것이요.

(경기 안산시 원시동·박순례)

### 삼매에선 생사의 업이 없나요

문 한 생각 일으키면 한 몸을 받아내고 백가지 생각 일으키면 백의 몸을 받아낸다고 들었습니다. 일에 열중해서 삼매에 빠져있는 때는 생사의 업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경기 과천시 문원동·황인수)

답 이 우주에는 비유하자면 그물같은 체와 같은 법망, 진리의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연의 그물이고, 업의 법칙의 그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짓는 생각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다 포획되는 그런 그물 말입니다.

내가 신·구·의로 들이고 내는 것이 모두 한치의 오차나 빈틈도 없이 입력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설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눈·귀를 속일 수 있다 해도 이 진리의 그물의 눈 없는 눈, 귀없는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의로 짓는 업이 다 한 생각에 달려있듯이 쌓인 업을 복일 수 있는 것도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이란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천년 어둠에 잠긴 동굴 속이라도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듯이, 어둠이 본래 있지 않은 것처럼, 업 또한 그와 같아서 한 생각에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인 줄로만 알아서 ‘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몰락 떨어지지 않는 한 그물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마음이 뭘가 체가 있는 듯이 생각해서 들어온다 나간다 한다던 어떻게 삼매대천세계를 접어 삼킨다 하고 혹성을 끌어들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그런 생각에 얽매어 있으니 옛날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성을 끌어들 본다는 건 마음이 뭘지 가르치고자 이룬 것인데 끌어들 보기는 무엇을 끌어들 본다가. 그냥 하나인 것들요. 불에 들어가면 불덩이와 하나요, 불에 가면 물과 하나요, 공기·흙과 하나요, 영계로 가면 영계와 하나요,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요. 혹성도 내가 뭘 수 있고 우주도 내가 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전제요 하나라서, 아니 삼라만상, 저 태양도 지구도 세상 두무물도 다 다 근본은 마음이니 굳이 하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전제입니다. 그러니 끌어들고 끌고가고 따를 없습니다. 마음도리에 서러면 우주가 한동네요, 내 한몸 살림살이 인 것입니다. 그러니 몸 밖이다. 몸 안이다 하면 뭘이 됩니까. 그런 생각 말고 우주 삼라만상과 한자리인 주인공을 굳게 믿고 나가십시오.

## 소금을 바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 佛자가 먹는 소금,

인산죽염은 생명원소들이 살아있는 굵은 소금을 왕대나무통 속에 넣고 입구를 지리산 황토로 봉한 다음 1천도 이상의 켈빈에 구워 낸 약소금입니다. 죽염의 창제자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인산죽염. 소금을 인산죽염으로 바꾸십시오.

150년을 잇는 「산토불이 건강의 덕」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 죽염요법 상담/질병치료 정신수양을 위한 씩씩 상담

## 절찾아가는 길

점점 녹색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팸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1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소플** 대표 이주영 합掌